

제9회 바다의 날 축하 메시지

존경하는 해양수산인 여러분,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충남도민과 보령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바다를 가진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또한 바다로 나아가면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큰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동북아 한가운데 가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해역이 바로 우리의 바다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선진 수산국가, 일류 해양과학국가,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0년 세계 5대 해양강국이라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과 어촌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스스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과 같이 어촌의 활로를 찾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자신있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

부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힘껏 뚫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 바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바다의 날이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